

<2022년 6월 5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라

[시대 성경]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달으려고 해야만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네게 은밀히 행한 일은 네가 행하고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자기가 왜 이같이 행하였나 생각만 하지 말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며 간구하여라.

그때 하나님은, 왜 네가 그같이 행했는지 깨닫게 해 주시리라.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라.”입니다.

- 시대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두고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달으려고 해야〉만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행해 주신 일〉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달으려고 해야’ ,

〈하나님도 성령님〉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뜻〉이 있어 ‘너와 함께 행한 일’ 도

네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모른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나 여호와〉가 당연히 ‘너’ 와 같이 행하지 않겠냐.

사랑하며 같이 사는데,

왜 〈나 여호와의 행함〉을 깨닫지 않고 그냥 지나가느냐.

〈앞의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달으면,

〈그다음 것〉도 그와 같이 연결해서 깨달아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 일〉에 ‘나 여호와가 함께한 것’ 을 깨달으면,

〈그다음 일〉도 ‘그와 같이 함께했다는 것’ 이 깨달아진다.”

하셨습니다.

- <앞의 것>은 ‘전초’ 이고, <그다음 것>은 ‘실제’ 입니다.

<앞의 것>은 <그다음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것>을 깨달아야,
<그다음 것>도 “이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 이해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됐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었습니다.

- ▶ 여기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 것>은 ‘전초’ 이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실제’ 입니다.

- ▶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이 길’ 로 가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 이와 같이

〈오늘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할 때,
〈그다음〉도 연결돼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 이번에는 〈선생님이 겪은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 어느 날 월명동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나님의 길 계단〉에 ‘청소할 것’이 많겠다고 하며 가 봤습니다.

가 보니 〈송홑가루〉는 다 날아가고 없었는데,
〈꽃송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길 계단’에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 선생님은 〈사역자 두 명〉과 같이
‘하나님의 길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기도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말하기를

“부지런히 청소하고 가자.

기도 시간을 지켜 〈본당〉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 〈본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이 둘에게 청소를 맡겨 놓고 나는 기도를 하러 갈까?’ 하다가,

감동이 돼서 ‘아니다. 얼른 청소를 마치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 그리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데,
‘은밀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본당에서 기도할 때>만 ‘나 여호와’를 만난다고 생각하느냐.

<청소할 때>도 나 여호와가 ‘네 옆’에 있었느니라.

<앞의 것>을 깨달아야, <그다음 것>도 깨닫게 된다.

<청소할 때>도 너와 함께했고,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

<나 여호와>는 ‘특별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이를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 깨닫고 보니,
<교회 본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청소할 때>는 ‘청소를 빨리 끝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빨리하고 시간에 맞춰 교회에 가는 것>만 의식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행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지지 그냥 깨달아지겠느냐.

〈나 여호와와 뜻〉이 있어 행하고도
예사롭게 〈하나의 자기 생활〉로만 보고 우연으로 지나가면,
〈나 여호와와 너와 같이 행한 것〉을 모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일말씀’입니다.

-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앞의 것〉을 깨달아야,
〈그다음 것〉을 ‘그와 같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 〈세례요한〉은 ‘전초자’ 이고,
〈예수님〉은 ‘실제 메시아’ 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한 말〉을 깨달아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이 깨달아집니다.

- 〈구약〉은 ‘신약의 전초 역사’ 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역사〉를 깨달아야,
〈그 뒤에 오는 신약역사〉가 깨달아집니다.

〈구약〉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약역사〉를 이루려 함이다.”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 이와 같이 <신약>은 ‘그다음 역사의 전초 역사’입니다.

<신약역사>를 깨달아야,

<그 뒤에 오는 역사>가 깨달아집니다.

<신약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이루려 함이다.”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으려면,
<뇌>를 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곧 <뇌>에 ‘가장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네 마음과 생각>을 열고 깨어 있어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깨달음’을 전달해 줄 때 깨달을 수 있다.

<스마트폰>도 켜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연락해도 받을 수 없듯이,

<뇌 스마트폰>도 열어 놓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주는 깨달음>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 항상 <뇌 스마트폰>을 열어 놓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전달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사람>끼리 ‘스마트폰으로 통화’ 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뇌 스마트폰으로 소통’ 하는 것입니다.

- <기도할 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면서
<뇌>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스마트폰>으로 ‘전할 것’을 전하십니다.

-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특별한 때’만 나타나지 않고,
너를 사랑하여 ‘늘’ 함께하는데 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느냐.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지지,
<그냥>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뇌>를 열어 놓고 깨어 있어야, 깨달아진다.” 하셨습니다.

- <다니엘>도

<때>를 ‘깨달으려고 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만 깨닫게 되니,
자꾸 깨닫고자 해야 됩니다.

-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알아 드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대화해 주십니다.

〈나중〉에 다 지나가서 깨닫기보다,
〈그때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가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 〈월명동 자연성전〉을 놓고도

‘왜 〈저 돌〉을 여기에 놓았지?’ ,
‘왜 〈저 나무〉를 여기에 심었지?’
‘왜 〈야심작〉을 저기에 만들었지?’ ,
‘왜 〈성령 폭포〉를 저기에 만들었지?’ 하고

〈하나님의 의향〉을 깨달으려고 해야 깨닫게 됩니다.

- 저마다 〈자기가 왜 시대 복음을 듣고 섭리사에 오게 됐는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정말 열심히 끝까지 하게 됩니다.

-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기뻐서 택하셨고,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섭리사>에서 ‘끝까지’ 나와 사랑하며 같이 살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부들과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십니다.

-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집니다.
- <그 주의 말씀>은 : <앞서 깨달아야 될 것>으로 <전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으로 연결되어,

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 이것이 <실제>입니다.

→ 이렇게 <앞의 것>을 깨달으면,
<그다음 것>이 ‘실제 삶’으로 연결됩니다.

- 하나님은 <말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생활 가운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연속’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꼭 깨달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부모들>은 특히 ‘2세대’에게

“너희는 <슈스에베>를 드리면서

왜 <삶 속>에서 ‘변화’가 없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달아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본인>부터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작은 나무>는 ‘속’이 단단해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거름>만 열심히 줘야 됩니다.

-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내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겉>으로 ‘표’가 잘 안 납니다.

<때>가 되면, 순간 확 큼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무>도 어렸을 때 ‘거름’만 많이 주듯이, <슈즈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 <슈즈들>은 ‘아직 배우면서 변화를 이뤄 나가는 때’이니,

<그런 말>을 들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으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니,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깨닫고,

연속해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